

화제의 건설근로자 송주홍 작가 초청 직원 특강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8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노가다 가라사대'의 저자 송주홍 작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보통 아저씨들의 평범한 밥벌이 현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공제회 임·직원들이 건설근로자의 생생한 경험을 간접 체험하여 건설근로자 및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 날 특강에는 공제회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이후에는 작가와의 대화 및 사인회가 진행됐다.

송주홍 작가는 기자생활을 그만두고 형틀목수로 일하면서 <노가다 칸타빌레>, <노가다 가라사대> 등을 저술하는 등 청년 건설근로자이자 동시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공제회 직원들이 건설근로자를 더 이해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청년 대상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관리팀	책임자	팀 장	김정환 (02-519-2141)
		담당자	대 리	노주현 (02-519-2148)